

현대인의 자아찾기 심리극, 이젠 예술

전문가 박희석 교수 광주서 매달 한차례 '월요 심리극장' 무료 공연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우울한 정연(가명)씨예요. 당신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 될까요. 저 사람은 밝은 모습의 정연씨입니다. 정연씨는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밝은 모습은 무슨 색인가요.”

심리극 디렉터의 질문에 무대 위의 정연씨는 우울한 모습은 검은색 천으로, 밝은 모습은 푸른색 천으로 표현했다. 이어 정연씨의 어머니, 친구 등의 역할을 맡은 ‘관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정연씨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연극으로 표현했다.

지난 19일 전남대 정문에 위치한 씨디아트홀에서는 독특한 공연이 열렸다.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인 심리극이다.

이날 무대는 심리극 전문가인 박희석(원광대 예술치료학과)교수가 심리극을 배우고 있는 연극배우 김종필씨 등 상담학, 심리학 전공자들과 꾸린 무대였다. 박 교수는 ‘월요 심리극장’이라

는 이름으로 한달에 한 번씩 심리극을 무료 공연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첫번째 무대라 전공자들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연극처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싸이코 드라마’로 불리는 심리극은 요즘엔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받는 장르다. 흔히 정신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최근 서울 대학로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심리극이 장기간 공연됐고,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 교수가 오픈된 공간에서 심리극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이유도 심리극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심리극은 디렉터와 관객, 그리고 무대에 선 주인공이 함께 만들어간다.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미리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고, 그날 참가자 중 자원자를 뽑는 형식을 취한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도 좋다. 내면에 감춰진 속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 마음 속에 털어내 버리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된다.

연극을 이끌어 가는 건 주인공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이끄는 디렉터다. 디렉터는 주인공의 상태를 파악하는 분석가, 일반 연극 연출가와 비슷한 제작자, 주인공의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자, 관객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집단리더 등 4가지 역할을 해낸다.

주인공은 다양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게 된다. 이날 무대에 선정연씨는 자신의 우울증의 근원을 찾기 위해 어머니, 대학 친구로 변신했고 ‘우울한 나’와 ‘밝은 나’의 역할도 수시로 해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객의 역할이다. 관객들은 수시로 주인공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배

우가 되고, 객석에서도 무대 위 상황과 적극 호응하며 주인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관객들도 디렉터가 주인공에게 하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공연 후에는 자신의 삶을 꺼내 놓는 시간을 갖는다.

“심리극은 치료 목적이 있지만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숨겨진 내면의 자아를 통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박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나 매맞은 아이들의 상처를 풀어주는 데도 심리극은 도움이 된다”며 “심리극장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요 심리극장’ 두번째 무대는 오는 6월 9일 오후 7시 씨디아트홀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2-383-05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폭력의 실체’ 무대에

연극 ‘그와 나’ 25일까지 씨디아트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연극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아트컴퍼니 원’은 연극 ‘그와 나’를 23~25일까지 씨디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와 나’는 아내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들어온 한 남자와 그를 치료하는 정신과 여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폭력의 근원을 파헤친 작품이다.

상이군인인 아버지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받은 어머니를 보고 자란 여의사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을 감금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유희처럼 계속되는 폭력의 사슬을 본다. 원광연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으며 올 광주 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던 류지형씨와 오설균·채희영·황민영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 2천원, 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작가 박일구씨 다섯번째 개인전

사진작가 박일구씨가 22~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The South Sea’를 주제로 남도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박씨는 드넓게 펼쳐진 수평선과 일렁이는 물결, 푸른 하늘 등의 풍경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박일구씨는 광주대 사진학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8 운주사 천불천탑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한국미협, 민족사진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복기자 kroh@

박물관 수놓은 ‘클래식 선율’

국립광주박물관 24일 ‘뮤지엄 콘서트’

광주시립미술관도 매달 ‘작은 음악회’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연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물의 보관·전시 기능이 강조된 정적인 공간이었다면 최근에는 관람객의 문화 욕구가 늘면서 다양한 음악회를 여는 등 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24일(오후 6시30분~밤 9시) 광주시 북구 마곡동 박물관 앞 마당에서 ‘뮤지엄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윤양한씨, 시립극단 이지선씨 등이 초여름 밤 하늘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수놓는다.

이들은 ‘남이 오시는지’ ‘강원도 아리랑’ ‘산노을’ ‘오 솔레 미오’ 등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과 이탈리아

민요 등을 들려준다. 또 금관 5중주단인 ‘T.O.P’가 ‘G선상의 아리아’ 등을 연주하고, 광주아버지합창단은 ‘강원도 아리랑’ ‘동무생각’ 등 정겨운 음악을 선사한다. 전문 시낭송가인 박행자씨 등은 문법란 시인의 ‘불혹의 연가’를 낭송하고, 이지선씨는 구성진 ‘호남가’ 한 자락을 불러낸다.

이에 앞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도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시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일 열렸던 음악회에서는 테너 김희주, 소프라노 김혜미씨가 가곡을 들려줬고, 국악인 금용웅, 이애자씨의 대금연주와 민요 공연도 곁들여져 300여명의 관객을 사로잡았다.

조현종 관장은 “박물관에서 유물 전시도 관람하고 흥겨운 음악에도 취해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실은 노래 봉사단 400회 ‘자선 공연’

소외된 이웃에게 노래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실은 노래봉사단’(단장 김효중)이 23일 오후 2시 KT광주 정보통신센터 3층 대공연장에서 400회 특집 자선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숙, 김혜연, 조향호 등 초대가수들의 신나는 무대가 준비되며, 발레댄스·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어진다. 또 꾸일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시설 12곳에 성금 600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은 지난 1993년 각 방송국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이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매월 한 차례씩 앙코르 등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 위문 공연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의 062-269-05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립합창단 ‘가정음악회’

22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구천)은 제 129회 정기연주회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가정음악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도레미 송’, ‘My fa-

vorite thing’ 등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과 팝송 ‘러브 미 텐더’를 편곡한 ‘노라리’ 등을 들려준다. 또 여성합창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과 오세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 기악곡을 무반주 아카펠라 등으로 들려준다. 티켓 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

제53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그룹사운드	▲ 은상
〈심사위원〉 배경희 교수(남부대) 최영희 교수(송원대)	2 BLAST 임주인 4명(서강고) 5 휘아 최영범 3명(석산고)
▲ 금상	▲ 동상
4 포이즌 추정우 5명(전남고)	1 Root.M 장재혁 4명(목포마리아고)
	3 MADROOSTER 김가은 외 2명(문성고)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극장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인디애나 존스4 (12세) 최고급관
2관 인디애나 존스4 (12세)
3관 아이언 맨 (12세)
4관 페넬로피 (12세)
5관 나니아연대기/인디애나존스 (12세)
6관 갯섬 (12세)
7관 스피드레이서 / 날라리총부전 (12세)
8관 인디애나 존스4 (12세)
9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영화 학급 이수하면 컴퓨터 혜택이 쏟아진다! (-2008.05.31)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저녁 정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호른 (전제) / 추격자 (18세)
2관 비스타보이즈(18세)/가루지가 (18세)
3관 포비튼킹덤 (12세)
4관 스피드레이서 (12세)
5관 아이언맨 (12세)
6관 테이큰 (18세)
7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외의 주차장 300대 • 9관도 심야상영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황포시장 영화시영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파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인디애나존스 (12세)
2관 페넬로피 (12세)
3관 인디애나존스 (12세)
4관 인디애나존스 (12세)
5관 날라리총부전 (12세)
6관 스피드레이서 (12세)
7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8관 갯섬 (12세)
9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10관 아이언맨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 넓은 주차장 * 10개관 * 저렴한 입장료 * 상영시간 밤 11시 ~ 새벽 2시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2관 갯섬 (12세)
3관 인디애나존스 (12세)
4관 날라리총부전 (12세)/스피드레이서 (12세)
5관 페넬로피 (12세)/테이큰 (18세)
6관 아이언맨 (12세)
7관 인디애나존스4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장 3시간 * 이동편의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 사다리(오전 9시~오후 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려시영 고래김동 • www.hamcinema.co.kr /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호른 (전제)
2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3관 스토리트 킹 (18세)
4관 포비튼 킹덤 (12세)
5관 인디애나존스 (전제)
6관 테이큰 (18세)
7관 갯섬 (12세)
8관 스피드레이서 (12세)
9관 아이언 맨 (12세)
10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 편의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령점 288-5757 * 하미 북영점 262-0825 * 하미 골프점 251-5060 * 영민관 예석점 261-2000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dcinema.co.kr

제 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2관 인디애나 존스 (전제)
3관 나니아연대기 (전제)
4관 아이언 맨 (12세)
5관 갯섬 (12세)
6관 테이큰 (18세)/스피드레이서 (12세)

* 무료주차장 3시간 (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